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신학의 과제¹⁾

채 수 일(교수, 한국신학대학교)

1. 미래의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말은 아담 스미스의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마르크스 자신도 왕복서한에서 쓴 것 외에는 그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아놀드 토인비의 '산업혁명'에 관한 저작에서 그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특정한 생산양식이며, 동시에 일련의 경제적인 사회구성체를 나타낸다. 생산양식으로써의 자본주의는 그 생산력과 생산양식을 통하여 성격지어진다. 경제적 사회구성체로써의 자본주의, 곧 다양한 생산양식의 복잡하고 구체적인 결합으로써의 자본주의는 그 발전단계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데, 발전의 시기에 따라 예컨대 상업자본주의, 공장제수공업(매뉴팩처)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등이 있을 수 있고, 발전

1) 이 글은 필자의 저서 『21세기의 도전과 선교』에 실린 '미래의 자본주의와 신학의 과제'를 필자의 허락을 얻어 제목을 고쳐 실은 것이다.

2) R. 하일브로너, 『21세기 자본주의』 강철규 역, 현대정보문화사, 1993, 49쪽.

의 공간에 따라서는 예컨대 자본주의적 중심부와 변두리, 지배적 혹은 예속적 자본주의, 영국적 혹은 프랑스적 자본주의 등이 있을 수 있다.³⁾

생산양식으로써의 자본주의는 노동과 생산수단의 분리, 자유 노동자의 생성, 화폐자본의 축적 등을 전제로 한다. 화폐자본은 생산자의 직접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생산 외에 상품교환을 위해 생산이 발전되면서부터 있어 왔다. 상품교환이 국제무역으로 확대되면서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고리대금자본, 상업자본, 공장제 수공업자본, 산업자본, 독점자본 등이 그것이다. 생산양식으로써의 자본주의의 특징은 이윤을 위한 상품생산과 그에 따른 이윤의 축적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기본적 생각이기도 하였다. 마르크스는 “고전적 경제가 프롤레타리아트를 부가가치 생산의 기계로만 취급했다면, 자본가는 이런 부가가치를 좀 더 많은 자본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하다.”⁴⁾ 고 반복해서 말했다. 정치경제학이 이런 생산양식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개념들의 전개는 이런 메커니즘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의 일반화로 시작된다. 생산수단인 토지와 인간의 노동력까지 모두 상품이 된다. 상품은 한편으로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동력 역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는데, 교환가치로써의 노동력은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에 의해서 규정된다.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노동력을 사는 사람, 곧 자본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에 드러난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본질적인 열쇠를 마르크스는 1867년 8월 24일 엥겔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스스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사용가치로든지 아니면 교환가치로든지 자신을 표현하는

3) *Kritisches Wörterbuch des Marxismus*, Bd, 4, Berlin, 1986, 596-597쪽

4) MEW 23, 621.

노동의 이중적 성격 둘째, 이윤, 이자, 지대 등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⁵⁾ 요약컨대 어떤 형태로든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실제로 모든 발전단계에서 볼 수 있는 자본주의의 기본법칙이라고 하겠다.⁶⁾

발전단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자본주의는 생산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관계를 깊이 변화시킨 다양한 단계를 거쳤다. 마르크스 자신은 『자본』 1권 제4장에서 협동, 공장제 수공업, 대규모 공업 등을 자본주의 발전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레닌(Lenin)은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를 제국주의로 규정하였고, 만델(Mandel)은 ‘후기 자본주의’로 이를 붙였다. 만델에 따르면, 자본주의 발전의 1차 단계는 산업과 공장제수공업 자본주의로써 영국의 경우 르네상스 이후 176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차 단계는 산업과 경쟁자본주의로써 영국에서 1760년부터 1830년까지의 기간에 발전하였다. 이 기간은 증기기관의 발명(방직산업의 발전)과 전기동력기의 발명(철강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시 두 시기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의 철학이 영향을 끼쳤다. 제3차 단계는 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시대로써 1880년을 전후로 시작된다. 기술적 발전과 관련하여 이 시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의 기계화가 절정에 이른 시기와 기술과학의 혁명시대가 그것이다.

비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Manotoux, Ashton, Foley)은 자본주의 발전의 제1단계를 규정하는데 마르크스주의자와 완전히 의견을 같이한다.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이해는 소홀히 취급된 부분이 더 세밀하게 분류되었는데 예컨대 카우츠키(Kautsky)가 제기한 농업문제가 그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 단계론이 의문을 받기도 하였는데, 베른슈타인(Bernstein)이 노동을 부가가치 창출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5) MEW 31, 326.

6) *Kritisches Wörterbuch des Marxismus*, Bd, 4, 599쪽.

본주의의 민주화 가능성을 말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대한 가장 활발한 논의와 결실을 거둔 것은 세 번째 단계, 곧 제국주의에 대한 논쟁이었다. 제국주의는 유형별로 두 개의 설명 견본에 따라 구별된다. 첫째 유형은 자본의 집중과 독점의 형성 경향, 금융자본과 자본수출의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Hilferding, Bucharin, Lenin 등이 이 입장을 취한다). 둘째 유형은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입장으로써 부가가치 실현의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⁷⁾ 그러나 국가독점자본주의 연구는 - 이 개념은 엥겔스가 암시하고 레닌이 '위험적인 과국과 그에 대한 투쟁방식(LW 25)'이라는 글에서 더 세밀하게 취급하였는데 - 독점적 생산을 공적으로 재정지원하는 것이 자본의 평가절하와 초과집중을 조절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보여주며, 또 일련의 지출을 국유화함으로써, 노동력 재생산의 사회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연구가 공동의 인식을 벗어나는 순간, 마르크스주의적 경제분석은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와해된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동의하는 이들은 혼합경제에로의 발전을 보거나 (예컨대 Strachey, Crosland 등), 다른 이들은 '잉여' 개념을 수단으로 하여 효과적 총수요에 대한 케인즈적 이해와 마르크스주의적인 가치론을 절충적으로 혼합하는데 이른다. (예컨대 Baran, Sweezy 등), 또 다른 이들은 독점적인 영역과 비독점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평균이윤율에서 이윤을 비교가 사라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단지 이윤을 비교가 지연되는 것으로 본다.⁸⁾

쾨바르트(W. Sombart)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초기, 절정기, 후기자본주의로 구별한다. 절정기 자본주의 시대에 비로소 급증하는 산업화와 관계된 경제형태가 성취되었다. 국가의 조종은 자유주의적 조건에 굴복한다. 경제이론의 발전 역시 자유주

7) 위의 책, Bd. 4, 601쪽.

8) 위의 책, Bd. 4, 602쪽.

의적 조건에 상응한다. 자유주의 경제 이론은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이론의 기초는 자유경쟁이다 (A. Smith, D. Ricardo 등). 절정기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 후기 혹은 독점자본주의의 시대가 뒤따르는데(약 19세기 말에) 독점 자본주의는 이미 경제적 위기의 결과였다. 쾰바르트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특징은 경제적 수익지향으로써, 자본주의야말로 조직된 경제형태로써 이런 노력에 상응한다.⁹⁾

자본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또 자본주의는 어떤 발전 단계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자본주의의 이론과 개념들과 주제들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다양하다. 더욱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실험되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변화의 결과, 특히 자본주의의 미래와 관련된 논의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¹⁰⁾ 특히 1990년의 세계적 지각변동이라고 할 만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체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체제로써 기능했던 사회주의의 파산선고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논쟁을 새롭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자본주의는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는 독점 경향과 하층계급에 대한 착취 때문에 자멸할 것이라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예견한 바 있다. 물론 마르크스 자신도 부르주아에 대한 생산력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부르주아는 100년이 채 안 되는 지배 기간 동안, 그 이전의 모든 세대가 이룩한 것보다 더 대규모적이고도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창조해 왔다. 자연의 정복, 기계의 발명, 공업과 농업에 있어서 화학의 이용, 기선, 철도, 전신의 발명, 전 대륙에 걸친 경작지의 개간, 운하 건설 - 사회적 노동의 무릎 위에서 잠자고 있던 이런 생산력을 이전 세기에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¹¹⁾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

9) TRE, 17, 605쪽.

10) TRE, 17, 606쪽

11) Karl Marx, *Kommunistisches Manifest*, in: *Ders., Die Frühschriften von 1837 bis zum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본주의체제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자본추구의 결과 때문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자기 해방 투쟁을 통하여 결국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도래 이전에 사라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¹²⁾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래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능력력보다 그것의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었고, 자본주의의 기능은 고전경제학자이며 도덕철학자였던 아담 스미스가 정확하게 본 것처럼 인간의 소유와 이윤에 대한 인간적 욕망 속에 놓여 있었다.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제학자보다도 자본주의의 궁극적 결말에 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다. 스미스는 모든 사람의 복지가 전반적으로 증대하는 대단히 놀라운 특징을 지니는 완벽한 자유 사회를 상상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회가 자원과 지리적 조건 덕분에 당연히 완벽한 부를 축적할 것이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축적도 멈추고 성장도 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¹³⁾

경제발전 과정에 대한 탁월한 분석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조셉 슈페터(Joseph Schumpeter) 역시 이론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기 파괴의 경향' 때문에 자본주의가 존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1950년 그가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후기 작품인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1942년 출간)에 실린 결론, 곧 자본주의가 자기 생각에는 앞으로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변경시키지 않았다.¹⁴⁾ 그렇다면 슈페터가 자본주의의 파멸을 예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일브로너에 따르면 그 답은 경제학에 있지 않고 사회학에 있다. 즉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문화가 가지는 가치 부식의 성격 때문에 결국 파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¹⁵⁾ 그러나 마르크스와 슈페터 역

Partei 1848, Stuttgart 1971, 530쪽.

12) R. 하일브로너 『21세기 자본주의』, 119쪽.

13) 위의 책, 118쪽.

14)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63쪽.

시 시대정신의 자녀였다. 마르크스가 『자본』을 쓰고 있을 때, 노동자 계급의 법칙적인 빈곤화와 그것의 귀결인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자본』의 마지막 권이 출간되었을 때 노동조합운동, 곧 이른바 다윈주의를 통해 이런 과정은 이미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노동자 계급은 부르주아로의 장정을 시작하였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짊어지고 가는 계급이 되고 있었다. 슈페터가 자본주의의 자멸론을 쓰고 있던 당시, 아메리카는 대공황의 시기였다. 그러나 아메리카는 경기를 회복, 자본주의 문화의 세계적 수출국이 되었고, 레이건 시대에 절정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다.

17세기 서구의 근대과학의 탄생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역사의 급격한 전환이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 비해 지극히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의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시장경제 체제를 매개로 한 자본주의는 경제적 성장과 부의 축적, 기술과학의 발전, 식량과 소비재, 의료 및 교육에 대한 기본욕구의 해결, 그 기동성 때문에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 사회주의 혁명이 가져온 절대적 빈곤의 효과적 극복, 노동자와 농민의 해방, 완전고용, 인간의 기본욕구의 충족 등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비해 경제적, 기술과학적, 사회정치적으로 침체된 것을 증명하는 현실은 자본주의체제의 승리를 더욱 확신시키고 있는 것 같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는 노동과 자본의 비효과적인 활용, 환경파괴,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만연도 폭로되었고, 이것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유일대안성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1년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인류의 80%가 지금까지 공산주의 정권(소련, 중국, 동부 유럽)과 권위주의적 정권

15) R. 하일브로너, 『21세기 자본주의』, 121쪽.

(아프리카, 아라비아), 혹은 상업적인 정권(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밑에서 살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에 인류의 80%, 곧 40억의 인구가 자본과 상품이 넘치는 세계시장으로 되돌아 오게 될 것이라는 꿈같은 보도를 하였다. 그후 1년이 채 지나기가 무섭게 뉴욕의 금융가에서는 세계 인구의 75%가 시장경제라는 ‘열반’ 에로 향하고 있다고 예시하였다.¹⁶⁾ 20세기말에 자본주의를 적대할 만한 어떤 경제체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처럼 보인다. 베르너 쾰름(Werner Sombart)의 말처럼,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생성된 자본주의는 거의 100년 전, “물질적 결핍과 굶주림, 억압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인류의 5분의 1이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결국 채 40년도 지나지 않아 붕괴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였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자본주의 고전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1776년)을 펴낸 지 215년 만에 자본주의는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게 된 것이다. 러시아 볼셰비키가 모스크바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74년이 지난 지금, 도전자인 공산주의가 같은 장소에서 몰락했다.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해체, 중국의 개방은 자본주의가 인류의 물질적 조건을 사회주의보다 더 낮게 만족시킬 수 있게 조직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고,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 자신도 1989년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특성은 끊임없는 자생적 변화에 있지만 자본주의 제도의 주요한 적은 바로 이러한 역동성이라는 것을 지적한다.¹⁷⁾ 그러므로 그는 사회주의적 반대 역할을 더 이상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으로써가 아니라, 성공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보다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서 보고 있다.¹⁸⁾

16) Der Spiegel, 47. Jg., Nr. 6, 114-115쪽

17) R. 하일브로너, 『21세기 자본주의』, 128쪽

18) Der Spiegel, 47. Jg., Nr. 6, 19쪽.

하일브로너에게 성공적 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는 고용과 소득의 안전성을, 경영자에게는 더 높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과제를 재편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정부에게는 국가적 성장의 조정자라는 합법적인 역할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웨덴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밝은 사례로 제시한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 더 나아가 이른바 시장사회주의 모델도 이제는 경계선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참여 경제’에서 찾는다. 사회통합 원리로서의 참여는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경제생활의 모든 국면을 결정한다는 약속 위에서 가능하다. 폭넓게 공유된 의사결정은 자기이익만에 의한 의사결정, 또는 재산이나 지위로 인한 단독 결정을 내리는 특권층의 사람들만에 의한 의사결정을 대신한다. 그러나 참여 경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즉 경제행위의 반사회적 목적추구를 억제할, 사회적으로 합의된 압력이 행사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¹⁹⁾

그러나 하일브로너가 제시하는 성공적 자본주의의 한 모델인 ‘참여경제’ 역시 자본주의의 자생적 문제, 곧 산업성장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부딪힐 생태계의 위기, 자본의 국제화 경향과 그에 따른 개별국가들의 정치적 대응력의 약화²⁰⁾만이 아니라 저개발국가들의 구조적 빈곤의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시험대에 오른 것은 또다시 자본주의 질서 자체의 생명력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의 미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인간의 정치적, 문화적 성숙을 전제로 하는 ‘참여 경제’가 미래의 자본주의의 사회질서가 되리라는 기대를 와해시키는 전조가 벌써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해체 이후, 지금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 곧 변종된 자본주의와 대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변종된

19) R. 하일브로너, 『21세기 자본주의』, 141-142쪽

20) 위의 책, 138-139쪽

자본주의란 먼저 앵글로 색슨계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Individual Kapitalismus)와 유럽계의 사회, 혹은 연대자본주의 (Sozial-oder Solidar Kapitalismus)라고 불리는 두 대립체제를 의미한다. 세번째 변종은 일본식의 집합적 자본주의 (Der Korporative Kapitalismus)를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들 세가지 유형의 자본주의체제간의 경제 전쟁을 이미 ‘차가운 평화’라고 이름짓고 있다. 자본주의의 적(敵)은 자본주의 자신이 된 상황에, 사회주의 해체 이후의 현실 자본주의는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미 1993년 1월로 EC가 단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단행, 유럽경제지역 (EEA)을 출범시켰고, 1992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결성에 합의하였다. 이런 추세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경제공동체 결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까닭은 세계자본주의가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운데 완전한 자유무역의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속에서 제한적이나마 역내의 경제통합을 실현함으로써 교역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즉 블록화를 통해 역내 무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의 실현을 통해 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 관세부과와 원산지 규정이라는 보호주의적 장벽을 구축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한다.

이런 세계경제의 삼극화는 향후 세계 경제구조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현재 선진국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자본의 이윤율 하락, 투자의 감소, 산업가동률 저하, 실질임금의 하락, 실업 및 고용불안 증대 등의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경제의 장기불황은 자본주의 국가간, 블록간의 격렬한 대립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며, 각 국의 내적인 자본의 재편과정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더욱 깊이 전개되고, 그와 함께 국민경제의 내셔널

화는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또 이데올로기 대결이 사라진 지금 초국적 기업의 강화는 파스 에코노미카(Pax Economica)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게 한다.²¹⁾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1995년 1월 1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세계무역 기구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발전을 조명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승 연합국 40여 개 국가가 미국의 브래튼우드라는 뉴햄프셔 주에 있는 작은 스키 리조트에서 세계은행들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전후의 개발 금융을 담당할 세계은행(IBRD)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상질서를 관장할 기구로써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설치하여 세계경제를 뒷받침할 3대 지주를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마지막 통상문제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3년 후인 1947년 그보다 느슨한 형태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 체제를 발족시켰다. 그 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기까지 GATT는 세계무역을 지배해 온 것이다.

그런데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말라가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최종협상이 타결되어 국제무역질서라는 GATT체제가 이제 WTO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에 오게 되었다. WTO 출범의 배경에는 미국이 GATT 체제 하에서 자국의 국제수지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함으로써 GATT의 근본정신인 자유정신에 어긋나게 불균형 무역을 요구하며, 그 결과 세계 각 국들이 자국 이익만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세계무역 전체를 위축시킨다는 인식이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 질서를 다시 자유무역으로 되돌리기 위한 개편운동을 하자는 취지를 담고 WTO가

21) 이대근, 『세계경제론; 글로벌화와 국민경제』, 까치, 1993, 222쪽.

출범한 것인데,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논의된 ITO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WTO는 80년대부터 급격히 변모한 국제무역체제를 다시 자유무역체제로 환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TO 협정의 기본원칙은 '예외 없는 관세'이다. 즉 국제 간의 무역에서 관세의 방식이 아니고는 무역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기본원칙은 반덤핑 협정인데, 이것은 자국법(自國法)에 따라 상품에 대해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라는 수입 규제 조치의 남용이 상당부분 규제되도록 구체화되고 명문화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본원칙은 상계관세 부과대상을 좀더 세분화하기 위하여 수출국이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 지급해서 만든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여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 보조금, 허용보조금 등으로 세분화했다는 것이다. 상계관세란 어떤 나라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보조금 때문에 생긴 가격차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먼저 농수산물의 경우, 예외없는 관세화와 관세율의 단계적 감소, 그리고 일정량의 최소한 수입조건, 각종 보조금 지원의 철폐 등에 의해, 그동안 이중곡가제도, 수매제도 등을 통하여 보호되어 왔던 국내 농축산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신, 건설, 유통 등 서비스 시장의 경우는 대부분 개방되어 영세한 규모의 국내 사업들에 대한 타격 또한 클 것이다. 특별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산업 지원책, 특혜정책 등이 국제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WTO가 환경위원회를 둔 것은 앞으로 이른바 그린 라운드로는 또 다른 무역규제의 강화를 예측케 한다. 선진국은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값싸게 만든 제품이 자국에 수입될 때 이 제품의 가격과, 공해방지 비용을 부담한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경향이다. 후진국은 결국 공해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해서는 가격경쟁을 할 수 없

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²²⁾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선진국의 수입규제 남발에 시달려온 우리의 수출환경이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특히 공산품은 수입제한 완화와 관세율의 인하로 그 수출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94년 11월 4일 'WTO 체제와 새로운 수출 기회' 라는 자료에서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1999년까지 5년 간 총 14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²⁴⁾ 실제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약 229억 달러의 수출증대가 나타나지만 수입증대 효과는 공산품의 경우 약 72억 달러, 농산물의 경우에는 약 8억 달러의 수입이 증대, 전체적으로 약 149억 달러의 국제수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⁵⁾

그러나 WTO의 출범이 가지는 경제적 영향력 못지 않게 그것이 수반하는 사회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WTO 체제에서는 국제자본의 이동, 투자에 관한 제약을 없애기로 합의했는데 이런 국제자본의 이동, 즉 초국적 기업의 대거 진출은 농촌공간의 해체, 즉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의 해체, 대도시화, 도시계층의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화적 위기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정현식, "국가경쟁력과 한국경제의 진로; 엔고 현상과 WTO 체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소식」, 2호, 한국 내외문제연구회, 1994, 15-23쪽.

23) 「중앙일보」, 1994. 11.5 사설.

24) 「동아일보」, 1994. 11.5 사설.

25) 조명래, "지방화 시대, 지역시민 -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 「지역사회와 생활경제」, 창간호 1994. 10, 24-25쪽.

세계경제가 이런 세 거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구 위에 남은 가난한 민족과 국가들의 장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예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강요당한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가들의 역외수출 타격과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희생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생태계의 파괴, 인구증가, 종교적 근본주의와 민족분쟁, 제3세계의 구조적 빈곤과 굶주림에 직면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신학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2. 신학의 과제

신학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대부분의 미래에 대한 문제의 제기과 마찬가지로 신학의 미래에 대한 질문도 신학의 현실과 관련되어 있고, 그 대답 역시 불투명한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신학의 현실 비적합성(예컨대 신학과 교회 현실의 괴리나 신학으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때문에만 신학의 미래를 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신학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신학의 미래를 묻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신학은 '신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규정된다. 그러나 신에 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명료성이 있는 가르침이 과연 있을 수 있는냐는 문제는 신학으로 하여금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 결국 신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인간의 경험을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⁶⁾ 그러므로 인간 경험의 다양성만큼이나 신학적 주제와 방법 역시 다양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신학은 신을 문제삼는 시대정신의 도전과 대결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다면 오늘 신을 문제삼는 시대적 도전은 무엇일까? 오늘 어떤 현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찾게 하며, 그에 대하여 말할 수밖에 없게 한단 말인가?

26) 도로테 질레, 서광선 역,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한국신학연구소, 1993, 9-10쪽.

새로운 민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문화간 갈등, 성차별과 인종주의, 인권의 침해, 무한한 무기경쟁과 위협받는 평화 등이 그 도전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 지구적 차원에서의 도전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확대와 그에 따른 세계 경제질서의 개편, 생태계의 파괴와 위협받는 지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이 도전은 신학적 성찰의 대상이나 내용이 신과 인간의 개인적이고도 내면적인 신앙경험에만 제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또 신학은 교회에 봉사하는 학문이라느니, 아니면 세계에 봉사하는 학문이라느니 하는 이원론적 분리 자체를 쓸모 없는 논쟁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 도전은 신학이 마침내 우리를 보다 깊은 신앙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까닭은 우리 시대의 도전이 - 그것이 전혀 신학이나 신앙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 인간의 성숙한 신앙적 결단없이 극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체제의 파산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향후 인류를 지배하게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사회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이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시장사회주의나 참여경제를 대안 체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은 부인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이 역동성이 자국적 차원에서 보다 인간적일 수 있도록 통제하는 합의된 장치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다. 신학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속에서 이 장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색의 과정에서 신학이 해야 할 과제는 먼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형이상학과 신학적 성화(聖化)를 비판하고 비신화화 하는데 있다. 까닭은 북미의 일부 극우 신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이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적이기 때문이다.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신학적 성화와 그 비판

신보수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대변인이자 미국의 '민주적 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를 신학적으로도 정당화하는 마이클 노바크는 인류 역사가 이룩해 온 모든 정치경제체제 중에서 민주적 자본주의만큼 인간생활의 일상적 기대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놓은(즉 수명을 연장시키고 빈곤과 기아를 근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인간적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사제수업을 받고 신부가 되려고 했던, 한 때는 그리스도교 사회주의자이기도 했던 노바크는 미국적 자본주의의 이론적 대변인이자 선교사로서 신학적 경제윤리의 극우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신보수주의의 민주적 자본주의가 여섯 개의 신학적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중의 하나가 민주적 자본주의의 삼위일체 교리다. 그는 민주적 자본주의가 삼위일체론에 상응한다고 보는데, 까닭은 그것이 민주주의, 시장과 이윤동기에 기초한 경제, 다원주의적 문화를 동적인 체계로, 하나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⁷⁾ 삼위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와 성령이 하나이면서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고 공동체 구성단체들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바크는 삼위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각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자본주의의 신학적 성화는 성서와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견강부회(牽強附會)는 그의 두 번째 자본주의의 신학적 교리인 '성육신론'에서 두드러진다.

노바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존중하고 그것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것의 허

27) M. 노바크, 김학준 역, 『민주 자본주의의 정신』 을유문화사, 1975, 7-8쪽.

약성과 비합리성, 사악함을 인식하고, 세상이 지금 또는 앞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전환할 것이라는 어떤 약속도 믿지 말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예수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고 묻는 그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유토피아주의자라고 규정한다.²⁸⁾ 사랑과 정의에 의거한 정치경제는 인류 역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인류 역사 속에서 전적으로 구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의 고귀한 기대들을 낮추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²⁹⁾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도 성서적으로 정당화된다. 노바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인용, 끝짜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끝짜가 되는 것(16절)이 경쟁을 인정하는 성서적 전거(典據)라고 주장한다. 이 비유의 사회경제사적 배경, 곧 늦은 시간엔야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었던 늙고 힘없는 낱품팔이 노동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등한 정의에는 노바크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³⁰⁾ 그는 경쟁을 또 인간의 덕성의 형태이며, 인간의 자연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에 불가결한 요소로 본다. 경쟁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자기 실현에 대한 저주를 의미하며, 경쟁자 사이에 산다는 것은 자기 발전을 위한 촉박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경쟁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제3세계나 가난한 민중이 왜 소외되었는지 묻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도록 인도한다.

자본주의의 신학적 성화는 그의 원죄론에서 절정에 이른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교리는 어떤 체제도 선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한다. 이런 양비론은 물론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도구로 쓰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자라는 인간적 악덕은 긍정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³¹⁾ 그의 사회주의 비판은 빈곤의 증대와 독재의 정당화,

28) 위의 책, 396쪽.

29) 위의 책, 399쪽.

30) 위의 책, 400쪽.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망명이나 이민의 물결이라는 실증적 경험에 근거한다.³²⁾

노바크의 민주자본주의의 윤리는 개인적 자유와 경쟁이 기초한 다원주의, 우연성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존중(예컨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으로 요약되는데, 물론 그는 미국이 신국(神國)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어떤 정치경제체제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 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면 신정통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그는 민주자본주의를 인류가 이룩한 최고의 경제체제라고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적 자본주의를 민주자본주의의 전형으로 본다. 그의 이론은 레이건과 대처의 신보수주의 경제가 위기에 부딪힐 때까지는 현실자본주의의 가능성을 전파하는 가장 전투적인 선교사였다.

2) 자유시장경제의 형이상학 비판

자유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운동법칙이라고 하겠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하고, 시장이 자유로운 만큼 인간도 자유롭다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의 신앙고백이다. 고전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1795년 그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해 온 기업가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혼란이 자율적으로 통제된다고 주장했다.³³⁾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은 시장경제의 부정의(不正義)를 은폐하고, 시장경제의 실체를 왜곡했다는 지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가 최대의 복지를 가져다주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31) 위의 책, 407쪽.

32) 위의 책, 25-26쪽.

33) John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 London 1776, part IV. chapt. II, 9쪽.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이것은 시장을 통제하는 이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이들의 복지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자신의 자율성을 따르는 시장경제 참여자들은 재화만을 추구한다. 우애와 존경은 찾아볼 수 없고, 인격적 결속으로 이루어진 임의적인 인간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절대적인 객관화로 인하여, 시장경제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형태와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³⁴⁾

결국 시장경제는 가난한 사람을 주변화시키고,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 식량, 건강, 주택, 교육, 고용, 사회보장제도 등으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시장의 자유는 가난한 사람의 자유가 아니다. 시장의 자유는 상품과 기업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만을 의미할 뿐이다.

시장경제의 더 큰 문제는 시장경제의 통제권을 장악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시장경제로 국민총생산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늘어나는 데서 확인된다. 결국 시장은 침략적 지배가 구조화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우상숭배적인 또 다른 이유는 시장경제의 흐름이 가장 민감한 증권시장의 언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증권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유통되는 언어는 가히 형이상학적이다. “어제 가볍게 몸살을 앓던 증권이, 정부의 수혈(경기부양)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 외에 어떤 세력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면,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6계명(살인금지), 제8계명(도둑질 금지), 그리고 제10계

34)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Berkely 1978, vol. I, 636-638쪽.

명(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3)구조적 빈곤과의 대결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 현실자본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대안일 수 있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신봉자들도 오늘 인류가 부딪힌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생산성을 높여 세계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희망이 '녹색혁명' 등으로 전개되었지만, 세계는 여전히 빈곤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력과 기술과학의 미발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사회의 통치이념이 사랑과 정의에 근거하지 않고,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빌리 브란트가 의장이었던 비동맹국위원회는 1980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미 이것을 지적하였다). 이런 사실은 인구학자인 폴 바이로크의 계산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그는 현재 선진국들의 경우 일인당 평균소득은 1930년대가 1750년대의 거의 네 배에 달했고 1980년대는 50년 전보다 다시 네 배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그들의 평균 생활 수준이 1750년대나 그로부터 230년이 지난 1980년대나 별 변동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한 개인이 비자본주의 세계의 개인보다 무려 여덟 배나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³⁵⁾

저개발국가들의 구조적 빈곤의 중요한 이유는 부(富)가 저개발 주변부로부터 발전된 중심부로 빠져나간다는데 있다. 점점 넓어져만 가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격차는 의심할 바 없어 자본주의 세계의 탁월한 성과를 입증하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착취의 힘을 보여주는 징표다.³⁶⁾ 이런

35) R. 하일브로너, 『21세기 자본주의』, 53-54쪽.

착취 구조의 전선에는 단일 국가의 영향력을 벗어나, 아니 국가 위에 군림하기도 하는 초국가 기업이 있기 마련이다. 유엔 초국가 기업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1985년 대규모 초국가 기업 350개의 총 매출량은 모든 산업국가의 GNP를 합한 액수의 3분의 1에 달하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발전도상국가의 GNP 합계를 능가한다고 한다. 초국가 기업의 국제 분업과 세계화된 시장제도는 이미 단일 정부의 정치적 권위를 넘어서고 있다. 자본자체가 직접 각 나라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넘어서, 초국가 기업의 역기능을 통제할 초국가적 규모의 정치적 대응력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³⁷⁾

비정부 기구로서 교회는 세계적 규모의 조직력과 연대 실현의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연대 활동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을 기초로 교회는 참여경제를 실현하고, 참여적 경제신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36) 위의 책, 54쪽.

37) 위의 책, 139쪽.